



**롯데제과, 추석맞이 사회공헌 나서**  
롯데제과는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줄음운전방지 캠페인을 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제품도 기부한다. 최근 '밀알복지재단', '희망을 나누는사람들' 등 사회복지기관 2곳에 배베로 등 과자 300여박스를 전달했다. /롯데제과



**쿠팡 'CS 배송전문가 자격' 인증받아**  
쿠팡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S 배송전문가 자격'을 인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조경택 쿠팡 트레이너(왼쪽부터), 남기영 쿠팡 트레이닝 디렉터,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쿠팡



**넷마블 게임콘서트 성료**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2019 넷마블 게임콘서트' 3회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 본사에서 최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넷마블 게임콘서트 3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



**신보, 중기 현장소통 간담회**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혁신 인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9일 인천에서 개최된 열린 '혁신 인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2026년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 한국 유치**  
한국관광공사와 제로로봇시스템학회는 지난 8일(현지시각)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자동제어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이하 IFAC) 이사회에서 오는 2026년 열리는 제23차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 한국 유치를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 젓지 않는 비 '레인룸'



홍경안 역  
시시일각

비는 자연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일상에선 종종 기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탓이다. 그러나 부산현대미술관에 가면 아무 걱정 없이 비를 맞을 수 있다. 우산은 필요 없다. 비가 내리지만 젓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의 전시로 주목받고 있는 '아웃 오브 컨트롤'(Out of Control)에 출품된 '레인룸'(Rain Room)은 인터랙티브 및 키네틱아트그룹 '랜덤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의 작품이다. 75년생 동갑내기 독일작가인 플로리안 오토크라스와 한네스 코흐가 2005년 영국왕립예술학교 재학시절 결성했다.

랜덤인터내셔널은 전구가 달린 15개의 막대를 움직이는 장치로 만들거나,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에 모터를 달아 허공에 띄워 인간과 기술 개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Future Self'(2012), 'You Fade To Light'(2009)처럼 신체 동작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형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번 부산 전시에선 선보인 '레인룸' 역시 관객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

'레인룸'은 말 그대로 비 내리는 방이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세차게 쏟아지는 실제 빗줄기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모르긴 해도 분당 수백리터는 족히 넘을 양이다. 그런데 천천히 걸을 경우 물방울은 몸에 닿지 않는다. 인식용 카메라와 센서가 관람객의 동작을 감지해 빗줄기를 차단한다. 인지과학과 미적 기술이 빛은 결과이다.

일상 속 비현실성이라는, 다소 환상적인 느낌을 심어주는 '레인룸'은 도시인들의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아련해진 추억과 잃어버린 기억을 소환한다는 게 특징이다. 잠시나마 건조한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매력도 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레인룸'을 화제성 있는 작품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다.

실제로 2013년 뉴욕현대미술관에 설치되었을 당시 관람객들은 서너 시간 이상 기다리길 주저하지 않을 만큼 이 작품에 열띤 호응을 보였다. 앞서 열린 바비칸센터 커브갤러리에서의 전시는 물론, 지난해 개최된 상하이 유즈미술관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카운티 미술관, 호주 무빙이미지센터 등에서 순회전 당시에도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 부산현대미술

관의 '레인룸'도 마찬가지다. 관람 시간이라야 5분 남짓 내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인기 내에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열망이 녹아 있다. 여기에 입소문으로만 들었던 작품에 대한 호기심, 일찌감치 개인 미디어에 노출되며 주목받았던 '폭우 속 젓지 않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들의 경험담까지 덧붙여졌다.

하지만 전제가 명확한 미증유의 이 작품이 지닌 의미는 단지 시각적 감흥에 있지 않다. '레인룸'은 상호성을 중시하는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열렬하게 함을 넘어 우리의 자연환경과 인간 삶의 대치성을 논한다. 기술문명 시대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경계까지 돌아보게 한다. 기술통제에 따른 수동적 인간화와 가공된 환경에서 실재를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오늘날까지 보여준다.

특히 '레인룸'의 핵심은 첨단을 걷는 기술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 사유의 지속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물리적 현상을 토대로 한 '놀랍다'와 '신기하다'와 같은 형용사에 묻혀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 작품을 본다는 건 결핍과 과함을 분간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자, 생각 없는 인류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자문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 맥도날드, 태국의 맛 '콘파이' 행사

주한 태국대사, 가수 닉쿤 등 방문

맥도날드는 10일 '맥도날드에서 즐기는 태국의 맛, 콘파이' 행사를 맥도날드 상암DMC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씽팅 랍피세판 주한 태국대사 부부, 가수 2PM의 멤버 '닉쿤' 등 태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다.

씽팅 주한 태국대사는 맥도날드가 태국의 '콘파이'를 통해 태국의 문화와 맛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맥도날드 상암DMC점에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씽팅 주한 태국대사 부부뿐 아니라, 위라씨니는씨차이 주한 태국상무공사관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아이돌 그룹 2PM의 멤버인 '닉쿤'도 참석했다. 지난해 한·태 외교 수립 60주년 친선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는 닉쿤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 양국의 문화 대사로서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왼쪽 두번째부터), 씽팅 랍피세판(H.E. Mr. SingtongLapisatepun, 이하 씽팅), 주한 태국대사 부부, 2PM 닉쿤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상암DMC점에서 열린 '맥도날드에서 즐기는 태국의 맛 행사'에 참석해 포즈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태국 맥도날드에서 먼저 선보인 '콘파이'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특유의 맛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태국 여행 시 반드시 먹어봐야 할 디저트'로 입소문을 탔다.

태국의 콘파이를 한국에서도 맛보고 싶다는 국내 고객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한국에도 선보였고, 출시 당일 한국 맥도날드 역사상 단일 제품 기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며 품질 대란을 일으켰다.

맥도날드는 콘파이를 향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단짠' 맛을 업그레이드한 콘파이를 지난달 선보이고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직 맥도날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더욱 만족스러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인사

- ◆**키움증권** ◇ 팀장 임명 △ 프로젝트투자본부 글로벌인프라팀장 안창윤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 강재원 △ 융합교육센터장 하홍열
- ◆**목원대** △ 입학부처장 임전수 △ 기획예산부처장 방재인 △ 학술정보부처장 겸 전산정보과장 이형주 △ 미래창의평생교육원 과장 이재

- 만 △ 음악대학 교학과장 김종대 △ 홍보팀장 겸 비서팀장 권경태 △ 생활관 과장 김천규 △ 학술정보과장 문정중 △ 산업정보연대학원 교학과장 장순광 △ 취업지원과장 겸 취업진로센터 과장 박형주 △ 시설과장 송영남 △ 미술·디자인대학 교학과장 김선명 △ 대학원, 교육대학원 교학과장 박준식 △ 교양지원과장 겸 스포츠대학 교학과장 오혜원 △ 사범대학 교학과장 노희자 △ 기획관리과장 동인범
- ◆**경주대** △ 대학원장 신희영 △ 기획처장

- 이태균 △ 교무처장 김기석 △ 학생처장 겸 취·창업능력개발처장 최무현 △ 입학처장 겸 국제교류처장 김성민 △ 산학협력단장 김철수 △ 사무처장 김형호
- ◆**비즈니스포스트** △ 산업부장(수석부국장) 권복기 △ 산업부 전자반도체팀장 김디모데 △ 산업부 통신팀장 윤희중 △ 산업부 자동차중공업팀장 남희현 △ 금융증권부 금융2팀장 김용원 △ 유통바이오부 유통물류팀장 최석철 △ 후이즈부 후이즈팀장 이규연